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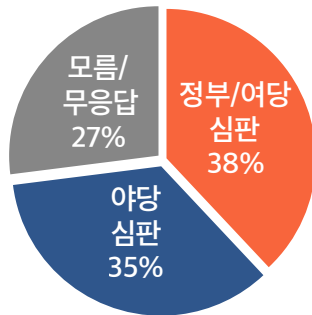
21대 총선이 채 한 달 남짓 남았는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예전 만큼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지 않고 있다. 정치 신인들은 대면 접촉을 못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전을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. D-40일 현재 선거 상황은 어떨지 점검해 본다.

1

이번 총선,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야당에 대한 심판론, 오차 범위에서 팽팽이 맞섬

-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 '정부 여당 심판' 38%, '야당에 대한 심판' 35%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

[그림] 총선의 의미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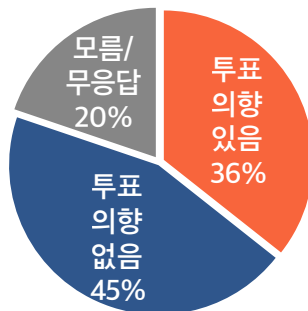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/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, 등록번호 6601, 2020.02.25. '뉴스1 총선거여론조사 5차 조사', (엠브레인퍼블릭, 전국 18세 이상 남녀, 1000명, 전화 면접 조사, 2020.02.24-25)

● 현 지역구 의원, '투표 하겠다' 36% < '하지 않겠다' 45%

- 이번 총선에서 현 지역구 의원에 대해 투표하겠다는 의견(36%)보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견(45%)이 높아, 현 지역구 의원에 대해 재 신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현 지역구 의원 투표 의향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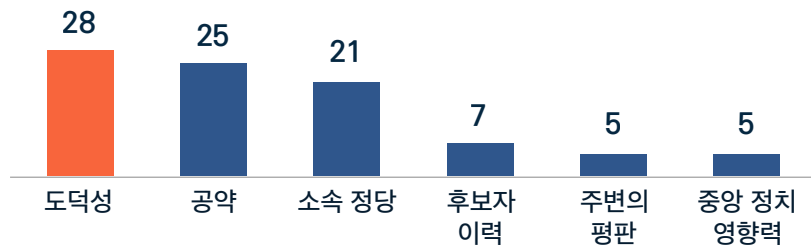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/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, 등록번호 6601, 2020.02.25. '뉴스1 총선거여론조사 5차 조사', (엠브레인퍼블릭, 전국 18세 이상 남녀, 1000명, 전화 면접 조사, 2020.02.24-25)

2 투표 후보 결정 요인, '도덕성'과 '공약' 임

-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'도덕성' 28%, '공약' 25%, '정당' 21% 등의 순으로 유권자들은 도덕성과 공약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투표 후보 결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(상위 6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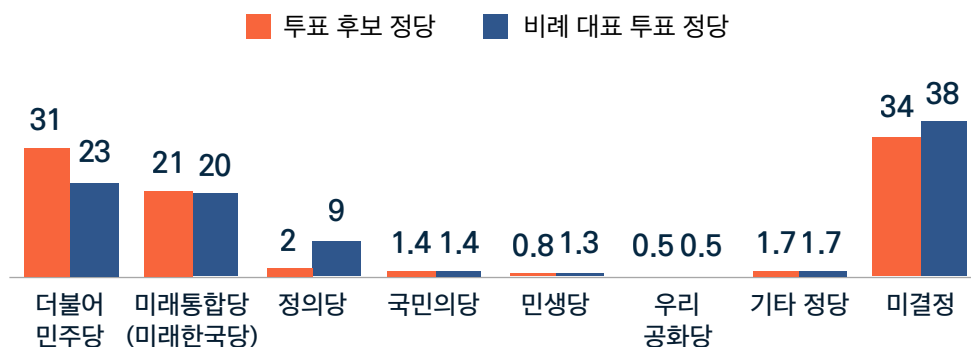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/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, 등록번호 6601, 2020.02.25.
 '뉴스1 총선거여론조사 5차 조사', (엠브레인퍼블릭, 전국 18세 이상 남녀, 1000명, 전화 면접 조사, 2020.02.24-25)

●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(미래한국당)간의 투표 의향 격차, 후보 투표보다 정당 투표에서 격차가 크게 줄어듦

- 이번 선거에서 투표 의향 후보 정당은 '더불어민주당' 31%, '미래통합당' 21%로 두 정당 간 10%p의 격차를 보이는 반면,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'더불어민주당' 23%, '미래한국당' 20%로 두 정당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21대 총선 투표 정당(투표 후보 정당 vs 비례 대표 투표 정당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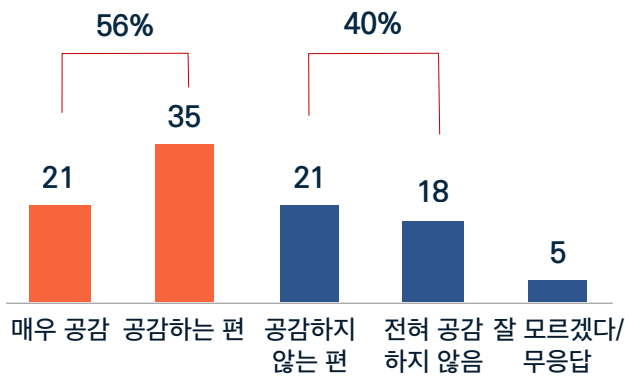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/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, 등록번호 6630, 2020.03.03.
 '중앙일보 21대 총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', (한국리서치, 전국 18세 이상 남녀, 1000명, 전화 면접 조사, 2020.02.24-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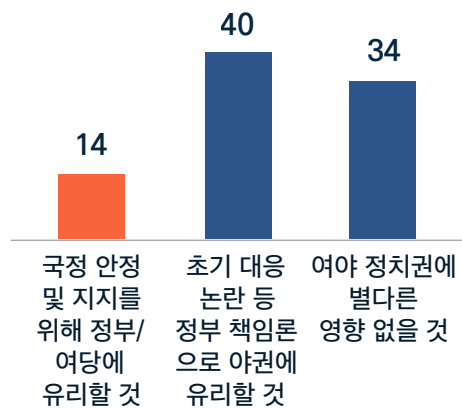
● 코로나19로 인한 총선 연기론, 긍정의견이 부정의견보다 높아

-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‘공감한다’(매우+약간) 56%, ‘공감하지 않는다’(전혀+별로) 40%로 공감한다는 긍정의견이 더 높음
-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은 여권보다 야권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음

[그림] 코로나19로 인한 총선 연기론에 대한 공감도 (%)



[그림] 코로나19가 총선에 미칠 영향



*자료 출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/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, 등록번호 6601, 2020.02.25.

'뉴스1 총선거여론조사 5차 조사, (엠브레인퍼블릭, 전국 18세 이상 남녀, 1000명, 전화 면접 조사, 2020.02.24-25)